



농업전망 2004

농업부문 2.7%성장 농가소득 1.3% 증가전망

농업부문 성장 예견, 물가상승률 보다 작지만 다행
쌀, 관세화·관세화 유예 모두 개방 폭에 영향 줄 것

- 홍 보 부 -

태풍,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로 2002~200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던 농업부문은 2004년에 전년대비 약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총소득(명목)은 전년대비 약 1% 증가한 14조9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당 평균 실질 농가소득은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전년대비 1.3% 증가한 22백만원(명목소득 2,64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쌀 협상은 2004년에 개시되어 연말까지 종료되어야 하나, 이해당사국이 최종 확정되는데 약 90일, WTO 차원의 검증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협상은 4월 하순에서 9월 하순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쌀 협상은 일단 관세화 유예 연장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수출국의 과도한 의무수입물량 증량 요구 시에는 추가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월 2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발표된 「농업전망 2004」중 농업부문만 요약, 정리한다.

농업여건 및 농업경제 전망

2004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고, 중국 등 개도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서 미국이 4%대 초

반, EU와 일본이 1%대 후반, 중국이 7.5~8.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교역 신장률은 주요 선진국의 경제회복과 중국의 지속성장으로 2003년 3~5% 수준에서 2004년에 6~8%로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2003년보다 11.6% 늘어난 2,16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행수지를 비롯한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흑자규모(120억 달러 내외)는 2003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김치, 화훼류의 수출증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비해 농산물 수입은 미국 광우병 문제와 가금 인플루엔자, 그리고 돼지 콜레라 등 축산물 안전성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2004년 농가구입가격 중에서 투입재 실질가격은 2003년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한 120.1로 전망되고, 2005~13년간 연평균 1.5%포인트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업 노임 실질가격은 2003~08년 동안 연평균 3.5%포인트씩 상승하여 2004년 146.6, 2008년 162.0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관세감축 폭이 클 경우 더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에 태풍 피해, 잦은 비 등으로 이례적으로 높았던 농산물 농가판매가격은 2004년에 작황회복이 기대되어, 큰 상승 없이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13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재배업 부문의 작황부진이 지속되고 축산업부문에서 한우, 돼지, 육계 등의 가격상승 요인이 부각될 경우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004년 농가호수는 농가교역조건, 경제성장률 전망(5% 내외), 그 동안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2003년 대비 3.6% 감소한 1,217천호,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3,27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경지면적은 183만ha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2003년 농업은 기상재해와 가축질병으로 얼룩진 한 해로 6월부터 시작된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저온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은 1980년 냉해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추, 수박, 과일 등 거의 모든 작물의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었다. 9월 11~12일에는 초대형 태풍 '매미'가 남해안 일대를 강타해 사과, 배, 단감 등 과일과 김장용 채소에 큰 피해를 입혔고 12월에는 미국의 광우병과 국내의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축산물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재해에도 불구하고 2003년 농가호당 실질 농업소득은 이례적으로 높은 농산물 판매 가격 상승에 따라 10,044천원으로 2002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실질 농외소득은 7,271천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전소득도 4,469천원으로 2002년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2003년 농가 호당평균 실질소득은 21,784천원으로 전년보다 1.2%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에는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등 농업소득 감소요인이 있으나, 농작물 단수회복과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경우, 실질 농가소득은 2003년 대비 1.3% 증가한 22,062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2000년 이후 점점 확대되고 있어 1998년에 94%이던 도농간 소득격차는 2001년에 76%로 떨어졌고, 2002년에는 73%로 더욱 악화, 1ha 이상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 도농간 소득격차도 1999년에 100%에서

2002년에는 86%로 하락하였다.

농가부채 계속 증가하던 농가부채는 2002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여 부채가 없는 농가는 전년보다 2.7% 포인트 증가하였고, 반면에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농가도 0.1% 포인트 증가하였다.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하의 젊은 영농층에서 부채규모가 큰 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은 가계비 감소에 의한 농가경제잉여의 증가로 2002년에 약간 호전되었고 영농수지가 적자인 농가 비율은 2002년에 4.7%로 전년의 3.8% 보다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 비율은 27.2%로 전년보다 0.6%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농산물 협상 동향과 전망

도하개발아젠다(DDA) 2003년 9월 시장개방 세부안(modalities) 타결을 위한 WTO 제5차 각료회의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으나 각료회의는 농업을 포함한 부문별 핵심쟁점에 대해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지체되었고, 결국 싱가포르 이슈(투자·경쟁·정부조달 투명성·수출촉진)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결렬되었다.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농업협상 의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최종 논의 결과를 반영한 데르베즈 의장의 초안(이하 각료 초안)이 회의장에서 배포되었고 이 각료 초안은 일부 회원국의 회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브라질 등 다수 회원국이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농업협상에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후 DDA 농업협상은 2004년 초반에 선출될 농업협상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수준에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나 협상의 종료 시한은 당초 2005년 1월 1일에서 2년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주된 원인이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선진국의 미온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때, 앞으로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각료초안에 기초할 때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쟁점은 UR공식-스위스 공식-무관세의 혼합 틀 안에서 분류될 관세라인의 비율과 감축수준의 결정이 될 것이며 고관세에 대한 관세상한의 설정은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불리한 요소이나, 소수 NTC 품목에 대한 관세상한의 적용 예외 가능성이 제시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쌀처럼 민감한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설정하여 관세 감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외 상당한 품목에 대해서는 스위스 공식이나 5% 이하의 저율 관세로 양허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쌀 협상 쌀 협상은 UR 농업협정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세화나 관세화 유예 모두 DDA 농업협상에서 결정될 시장개방 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쌀 협상은 GATT 28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①통고, ②이해당사국의 확정, ③양자협상, ④협상결과의 WTO차원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쌀 협상은 금년 중에 시작해서 마쳐야 하는데 이해당사국이 최종 확정되는데 약 90일, WTO 차원의 검증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어 실질 협상 기간은 상당히 짧을 것으로 판단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관세화의 경우 쌀의 관세상당치의 크기가 될 것이며, 관세화 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추가적으로

늘어날 의무수입물량의 크기가 될 것이다. 핵심 이해당사국은 지난 5년 이내 우리나라에 쌀 수출을 한 적이 있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인도 등 5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남미의 쌀 수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EU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해당사국은 더 많은 의무수입물량 확보를 위해서 협상초기에 관세화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실질 이해관계가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 등은 우리가 적절한 수준의 수출물량을 보장해 줄 경우 관세화유예 연장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관세화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협상 결과 추가적인 시장개방 폭은 관세화시 관세상당치 크기와 감축폭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르베즈 초안에 따를 때 쌀의 관세는 10~20% 정도 소폭 감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150~200%의 관세상한이 적용되어 대폭 감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화유예 연장시 의무수입물량은 유예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전적으로 양자협상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우나, 일본과 대만의 과거 예에 기초할 때 8%내외가 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화유예나 관세화 양자 모두의 가능성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냉철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EU의 동유럽국가 통합,

NAFTA의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로의 발전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럽과 미주 양측이 지역경제블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여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결속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이 아세안과 합하는 동아시아 경제블록화가 완성되면 세계 경제는 3각 구도로 재편될 것이며, 동아시아 경제블록은 GDP 6조 7천억 달러, 인구 20억 명이 되어 EU와 NAFTA에 상응하는 경제블록을 형성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등과 협상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한·중·일 3국의 FTA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도 경제적, 경제외적 영향이 큰 한국과의 FTA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일본 및 싱가포르와 동시에 FTA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과는 2003년 12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향후 2개월 주기로 협상을 개최하여 10월 제6차 협상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하고, 2005년에는 민감품목의 처리를 포함하여 협상을 종결지를 예정이다. 싱가포르와는 2004년 1월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4년 중에 협상을 종결지를 예정이며 싱가포르와의 협상은 농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품목이 거의 없어 협상타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싱가포르가 중계무역을 하는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FTA 체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이다. FTA로 인해 이익 보는 산업과 손해 보는 산업이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산업의 반발이 FTA를 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취약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FTA 추진 조직 및 체제 정비, FTA 추진절차규정 제정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칠레 FTA의 피해산업은 농업이었으나 한·일 FTA의 피해는 주로 부품제조 업체를 비롯하여 자동차, 기계산업 등 중소기업이 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FTA를 둘러싼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조정, 정치적 리더쉽 발휘 등이 우리나라 경제와 FTA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책과제

2003년에는 농업소득이 감소한 농가가 많고, 그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향후 대내외 농업여건은 농가판매가격 하락,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 등 우리 농가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직접지불제 등 이전소득을 늘리고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농업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부채 관리가 중요하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농가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부채축소를 위한 농가 노력을 돕기 위한 자산매각 촉진 등 정부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물류센터의 활성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산이력제 등 안전성 프로그램의 개발, 수출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 품목 및 브랜드 육성, 생산에서 해외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수적이다.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시장개방의 관철과 신속적인 농정수단의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개도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특별우대 조치와 수입국의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2004년 우리나라 FTA 정책은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협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인데 싱가포르와의 협상은 민감한 쟁점사항이 거의 없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나, 향후 전개될 아세안과의 FTA의 시급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부문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일본과의 FTA에서는 제조업 분야가 피해산업이 될 것이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실업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쌀 협상은 우리농업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므로, 협상상대국별 쌀 산업여건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고려한 전술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쌀 협상의 모든 절차에 대한 시의 적절한 홍보와 농민 설명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생산자, 정부, 소비자들로 구성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산물 소비패턴의 변화,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표준화·규격화된 브랜드 상품을 공급하고, 소비자 지향적이며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일본, 동남아, 미주 및 유럽을 겨냥한 공격적인 수출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농약정보**

